



G A T S A L TEACHINGS

가찰 법문

제18호

동규가찰링 승가대학 뉴스레터

2006년 6월

2005년 오스트리아 발트젤 회의에서 한 텐진 팔모 스님의 법문



*‘부처’ 라는 말은 깨어났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모두 잠자고 있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전에 히말라야 석굴에서 수행하던 시절 이런 꿈을 꾸었다.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안에 있었다. 감옥에는 여러 개의 층이 있었는데 맨 윗층에는 펜트하우스가 있어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춤추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층층이 내려가 맨 아래층 지하감옥에서는 절망에 빠져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있던 지하감옥에 있던 우리는 모두 감옥에 갇혀있었다. 한순간 그곳이 매우 불안정한 곳임을 깨달았다. 오늘은 펜트하우스에 있지만 내일은 지하감옥으로 떨어질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갇혀버린 것이었다.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여기는 감옥이야. 어서 나가자” 하지만 그들은 “그래 감옥 맞아. 하지만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고 하거나 “그래 감옥이긴 하지. 하지만 탈출이 너무 어려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나야.” 라고 했다. 그러다가 나는 함께 달아나겠다고 하는 두 친구를 만났다. 꿈은 계속된다.

문제는 왜 우리가 여기에서의 평범한 삶을 감옥으로 여기냐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질문이긴 하지만 왜 그것이 감옥일까? “내 삶은 괜찮아. 감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하며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갇혀있다. 실제 감옥문이 아니라 무지에 갇혀있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편재하여 나는 미래에 대해 걱정했던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과학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우리는 붓다가 이 땅을 걷던 그 때와 똑같이 무지하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무지한 걸까? 아인슈타인은 우리시대가 지식의 성장은 엄청났지만 지혜의 성장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무지는 교육과 관계가 없고 외적 총명함이나 천재성까지도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 걸까? 우리는 자신의 본면목과 이 세상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무지하다. 무지가 휘두르는 모든 잘못된 것들에 집착하고 있기에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이다.

불교는 언제나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탐구한다. 해탈, 마음의 해방을 추구하는 거다. 문제는 평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시간의 세상 안에서 살고,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이분법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늘 주체인 “나”가 있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객체가 있다. 우리는 이런 “나”와 “내것”이라는 마음에 집착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들의 성, 인종, 국가, 종교에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이것이

나다. 나는 나의 개성이다. 나는 나의 추억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좀더 미묘하여 “아니야. 그 모든 것 뒤에는 무언가가 있어. 변하지 않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온 ‘나’가 있어.” 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모든 “너”와 분리되어있는 “나”를 찾을 때 그것은 어디 있는가?

불교는 그저 우리를 고요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는 우리가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양파껍질을 벗겨내는 것이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층들을 벗겨냄에 있어, 먼저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층을 벗겨내고, 다음에는 국적, 교육, 사회에서의 계층, 직업이라는 층을 벗겨내고 나면 “나”는 어디에 있나? 결국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넘어선 무언가에 도달한다. 이런 본원적인 알아차림, 우리 존재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원초적 알아차림은 “나”나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사고와 감정, 개념이 가고 오는 그 너머에서 알아차림의 차원을 체험한다. 그것은 말이 없고, 시간이 없고, 비이원적인 인식이다. 우리가 언제나 그 높은 차원의 전적인 알아차림 차원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처인 것이다. 간단하다. 이런 알아차림은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깨닫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알아차림은 그저 알아차림일 뿐이다. 티벳인들은 그것을 허공에 비유한다. 허공에는 중심도 가장자리도 없다. 허공은 끝이 없다. 허공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도 있다. 그것은 공간이다. 티벳어로 공간과 허공은 한 단어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공간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 이런 알아차림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

부처는 말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 자꾸 들이킬수록 더욱 목이 타게 된다.”

“부처”라는 말은 깨어났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잠자고 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며 그 꿈을 믿는다. 이것이 문제이다. 잠시라도 깨어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투사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은 매우 명민하고 맑고 깨어있어 우리의 본면목이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을 완전히 넘어선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명료하며 생생하다. 하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예고는 없다. 그때 모든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 질로 이루어지며, 예고는 어디에도 개입되어있지 않다. 그저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해탈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진면목을 푸른하늘을 가리고 있는 구름처럼 가린 것이 있다. 그 구름은 바로 우리의 부정적 감정이다. 부정적 마음은 집착하는 탐욕스런 마음, 분노와 혐오, 자만과 오만, 질투와 시기, 그리고 특히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지이다. 그런 것들이 병풍처럼 우리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통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과 사고 감정 기억 개념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본다. 한 사물에 대해 그를 겹겹이 둘러싼 우리의 개념적 의견들을 벗겨낸 후 발가벗은 모습을 볼 수 없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회의장의 천장을 본다.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예술작품이라고 보거나 천박한 싸구려라고 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나! 어떻게 이 따위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차이는 없다. 천장은 그저 천장이고 그림은 그저 그림일 뿐이다. 그것에 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정신적 자세나 배경 교육 미적 감각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와 같다. 우리는 어떤 것도 그 본래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보는 버전으로만 볼뿐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은 마음을 통하여 해석된다. 하지만 마음 그 자체는 모른다.

우리는 말한다. “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내 의견에 의하면 그러하다.” 하지만 사고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의견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 감각을 통해 외적 세상을 흘러가지만 보고 생각하고 맛보고 만지는 그런 알아차림을 안쪽으로, 마음을 향하여 돌리지는 않는다. 사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 나는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한다면 그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사고 과정은 무엇이며 이 사고 과정을 넘어선 곳엔 무엇이 있나?

우리는 너무 머리에만 매어있다. 일부 신경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는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뇌는 컴퓨터이고, 마음의 원천은 여기 이곳, 가슴 한가운데 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 흥미롭게도 머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거기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당신이 하려는 명상 수행도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격이다. 당신과 수행이 마주하고 있다. 명상에서 시작하는 이원적 접근법은 여기 머리에 있다. 두뇌는 명상을 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명상이 궤도에 접어들고 마음이 명상 상태로 접어들면 명상 자체는 아래쪽 가슴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나면 명상하는 자도 명상도 없다. 당신은 명상과 하나가 된다. 그때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당신은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한 그것은 이 위 머리에서 머문다. 당신이 명상 자체가 될 때 그것은 가슴 한가운데로 내려온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늘 알고 있던 일이다.

현대문명에서 특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붓다는 우리 고통의 원인은 부정적 감정, 특히 우리가 무지하게 집착하는 에고라 했다. 탐욕은 이 에고를 위해 “ 나는 --을 원한다” 를 의미하고, 분노와 혐오는 이 에고를 위해 “ 나는 --을 원하지 않는다” 를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 고통의 원인이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매우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 2000년 전 붓다는 말했다. “ 욕망은 소금물과 같다. 많이 마실수록 더욱 목이 타게 된다.” 당신은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당신 자신을 보라! 옷장을 보면 앞으로 10번을 다시 태어나도 충분히 입을만한 양이 있다. 왜 더 많이 필요한가? 우리 모두는 충분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다. 모든 소유물을 다 꾸리면 가지고 갈수도 없어 트럭을 불러야 한다. 왜 더 많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무엇이 되었든 그 최신형을 가질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는 언제 행복이란 너그럽게 주는 것, 남들의 행복을 즐기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될까?

행복이 소유물에 달려있다는 끔찍한 선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망치고 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모두 텔레비전에서 이런 선전을 보고 있다. 그들 모두는 디자이너 옷과 디자이너 장난감을 원한다. 그들은 이미 이 음험한 선동을 믿고 있고 그 선동은 점점 폭력적이며 영적 지혜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 모두가 폭력이다. 최근 나는 중3에서 고3까지 학생들이 만화, 영화 게임을 통해 25000시간의 폭력물을 보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모든 영화가 좀더 자극적이 되기 위해 좀더 많은 폭력과 유혈을 더한다.

이 모든 탐욕과 분노가 이 “ 나” , 이 에고를 부추긴다. 나는 나 자신을 팔아야 한다. 나는 가장 중요하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 모두가 오케이다. 이 에고, 이 에고의 장식.. 이런 것들이 다 독이고, 마음의 독이다. 우리가 병든 사회인 것도 당연하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독을 더욱 들이마신다. 그리고 나서는 왜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지 궁금해한다.

어디선가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했다. 끔찍이도 잘못된 길이며, 이제는 기본으로, 영적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행복은 남들의 행복 속에, 남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에, 언제나 자신만의 만족과 혜택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

우리의 만족과 혜택은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친절함의 것에, 너그러움의 것에, 사려깊은 것에, 내면의 고요함, 마음의 명료성을 닦는법을 배우는 것에, 그리고 모든 존재와의 공감에 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남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린이들에게 그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잘못된 가치관을 전해준다면 차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남들이 그리 했다면 우리도 그리 할 수 있다.”

우리는 매우 궁지에 빠져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마음자세를 바꿔야만 한다. 마음자세는 이해를 통해 진정 변화된다. 이해, 사랑, 자비는 서로 나란히 함께 간다.

중요한 것은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외적 현실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들, 대체로 인간들의 내면이 반영된 것이다.

지구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텐진 팔모

팔모 스님의 본 법문은 오스트리아의 발트젤 재단에서 열린 2005 발트젤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다. 발트젤재단의 사명은 의미있는 삶을 향한 탐구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으로 만드는 일이다. 발트젤재단은 평범하지 않은 개인과 그들의 지식 및 지혜를 모아 인류의 영적, 정신적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이다.